

잊을 수 없는 2017 에든버러 축제 하이라이트

글 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저항으로부터 70년 맞이를 축하하며 각국 예술단체들이 축제의 향연을 즐기는 가운데 당시의 작은 움직임이 바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 전 우리 한국에서 예술 지원금을 빌미로 이를 억압하며 벌여졌던 “블랙리스트”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올라 묘한 감정이 교차한다. 하지만 올해 유난히 많은 한국 작품이 참가했고 현지 에든버러 축제 전문 PR사가 예술경영지원센터(Korea Arts Management Service)의 기금으로 이들 작품 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주영 한국문화원(KCC)에서도 런던 쇼케이스 같은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등 우리 작품의 해외 진출에 특별히 관심을 쏟아 왔다. 그래서인지 축제 초반부터 주목을 끌고 있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호엔 우리 예술가들이 해외 진출의 메카로 인식하는 장수 축제의 과거와 미래를 잠깐 조명해 보고 이 축제를 기획한 쇼나 메카시(Shona McCarthy, Chief Executive of Edinburgh Festival Fringe Society) 위원장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Edinburgh Festival Fringe Society

다음은 쇼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월간 <한국연극> 독자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접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공연단체 및 정부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프린지의 성격을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1947년 이후 축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전쟁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고자 했던 움직임 일환으로 70년 전 에든버러 국제 축제에 초대받지 못했던 8개의 극단이 공식 프로그램에 합류되는 것을 거절 당하고 축제의 변방에서 저항하듯 공연을 올리면서 시작된 것이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Edinburgh Festival Fringe)가 이젠 세월이 흘러 역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에든버러 전역에 퍼져있는 약 300여 개의 극장에서 62개국 3,398개의 공연단체가 53,232회의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규모를 넘어 어느덧 세상에서 가장 큰 창작의 산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관점으로 70살이 된 지금의 에든버러 축제의 특징을 정의해 주신다면?

제 생각으론 70년 전 처음 만들어진 정신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옛정신이란 예술가라면 누구라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고 표현(들려주고자 하는)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찾아와 예술장르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개방형 축제(Open Access Policy)입니다. 단지 자신의 작품이 보여질 수 있는 장소를 찾기만 한다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창구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축제를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주요 특징입니다.

축제를 지휘하는 위원장으로서 축제의 어떤 면이 가장 흥분되나요?

위원장(Chief Executive of Edinburgh Festival Fringe Society)으로서 두 가지 면에서 흥분됩니다. 내 나이가 아닌(웃음), 축제가 70세를 맞이하는 동안 이런 양식의 공연축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프린지를 벤치마킹해 프린지(Fringe)라는 이름으로 약 200여 개의 축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개념을 제공한 일종의 첫 출발지가 바로 에든버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구상하고 실현한 예술축제의 형태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었다는 점이 격하게 자랑스럽고 흥분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올해 62개 나라의 예술가들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에든버러라는 도시에 모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이는 것! 아주 특별한 일이라 생각해 역시 흥분됩니다.

축제의 규모가 점점 커져만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단점 같은 것은 없나요? 가끔 발권 시스템 오류나 작품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축제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저나 우리 위원회 소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거울공주 평강이야기(behind the mirror))



극단 성북동비둘기 <미디어 온 미디어(Media on medis)>

속 임직원 모두는 축제를 전혀 프로그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예술가와 관객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1950년대부터 있어왔습니다. “너무 커지면 통제가 되겠는가?”라고 하시지만 우리 주최 측은 규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극장 공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사이즈에 대한 한계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축제 위원회의 관점은 단순히 축제의 규모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가능성, 기회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위원장님이나 임직원들이 이런 정도의 세계적 축제를 준비하는 주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축제의 꼭대기에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 외에 제 의견으로 세상의 모든 예술가(신인 또는 유명한)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가장 위대한 예술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정도의 축제에 몸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2020년 이후엔 축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나요?

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마법의 크리스탈 불은 없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하면서 아트마켓과 같은 시장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세계 축제 관계자들과 프로그래머, 프로모터, 또는 프로듀서들이 새로운 작품을 찾거나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려 할 것이고 동시에 관객들이나 매체들은 그들 작품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축제라는 이름으로 에든버러는 이 모든 분들에게 관객과 예술가, 예술가와 예술가 그리고 예술가와 매체를 엮어내는 플랫폼을 계속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한국에서 참가한 작품들이 약 19편(5편 정부 지원 단체)정도 됩니다. 우리 작품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멀리 한국에서 19개의 단체가 참가했다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작품들은 관객이나 매체의 반응을 근거로 할 때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리안 드림>, <스냅>, <미디어 온 미디어>, <웅알스> 같은 작품은 대중적 관심이 높아 일부 회차 매진사례를 보였다.) 한국의 예술가들이나 제작진들이 이곳 에든버러까지 올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정부 기관에서도 스코틀랜드 예술가들이 에든버러라는 예술 플랫폼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축제 이후 국내의 투어를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국 예술가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예술가들은 모두 아주 훌륭한 문화대사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한국의 작품을 에든버러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세요. 우리 에든버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프린지(Fringe-일반적으로 대문자 F로 시작하면 에든버러 프린지를 상징한다)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모여드는 여름 최고의 공연 축제로서 특히 영어중심으로 공연되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한국 공연은 대사가 없는 언버벌(Non-verbal)장르를 선호해 왔었는데 이번 작품 중 특히 <미디어 온 미디어>는 제목 짓기에서부터 익숙한 의미권 매체의 특징을 공연에 대입하는 연출력으로 자막 사용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는 영국 가디언지에서 추천작으로 선정될 만큼 텍스트 중심인 우리 연극이 언어 장벽을 넘어 어떻게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관객들이나 평단의 반응이 시작부터 뜨겁게 나타나 이번 축제의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 🇰🇷

사진 각 제작사 제공